

내수 '부진의 늪'...건설수주 26.4% 하락 '환란 후 최대폭'

상품소비, 20년만에 역주행...민간소비 증가율, OECD 평균 미달 새해 전망도 밝지 않아...한은·KDI "소비증가, 작년 수준 머물 것"

내수가 '부진의 늪'으로 빠져들었다는 지표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소매 판매를 비롯한 민간 소비뿐만 아니라, 투자·건설까지 내수 시장을 반영하는 지표들에 일제히 '비상등'이 켜졌다.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11월 소매 판매는 20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설비투자도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밀바라' 체감 경기와 직결된 건설 분야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다른 주요국들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내수 부진은 눈에 띈다. 작년 3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주요 7개국'(G7)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해

드라인 성장세가 다소 살아나더라도, 국내 경기 전반으로 온기가 확산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건설경기 선행지표 급추락...수주, 작년 1~11월 26.4% ↓=당장은 건설 경기에 빨간불이 켜졌다.

향후 건설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표적인 건설수주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급감했다.

1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작년 1~11월 건설 수주액(경상)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6.4% 감소했다.

1~11월 기준으로 건설 수주액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2018년(-0.6%)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감소 폭으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 당시인 지난 1998년(-42.1%) 이후 25년 만의 최대폭이다.

건설수주는 부동산 경기회황 속에 연간 기준으로 2020년 16.6%, 2021년 9.2%, 2022년 10.1%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고금리와 고물가에 직격탄을 맞은 모습이다. 자금조달 비용이 올라가고 원자재값과 임금도 상승하면서 사업성이 약화된 영향으로 보인다.

착공도 부진하다. 작년 1분기 건축착공은 전년 동기 대비 28.7% 감소했다가 2분기 -46.5%, 3분기 -44.2% 등으로 더 추락했다.

건설업체의 시공 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불변)은 작년 1~11월 8.7% 늘었지만, 수주·착공 부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태양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하는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위기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건설경기 부진은 가뜰이나 싸늘한 체감 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2022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건설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5%가량에 달한다. 제조업과 서비스 기반이 약한 비수도권일수록 건설투자

의 비중은 커진다. 고용 측면에서도 일용직 근로자가운데 건설업 종사자가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상품소비 20년 만의 마이너스...올해 소비전망도 '흐림'=이미 소매판매·설비투자 등 내수 지표는 부진한 모습이다.

작년 1~11월 재화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불변)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 감소했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2013년(-3.1%) 이후 20년 만에 '마이너스'다.

19년 만에 2년 연속으로 3%를 웃도는 고물가에,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가계의 소비 여력이 줄면서 상품 소비가 위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음식점 포함 소매판매액지수(불변지수)는 작년 4월부터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0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장기간 줄어든 것이다.

작년 1~11월 설비투자도 1년 전보다 5.4% 감소했다. 2019년 1~11월(-7.2%) 이후 4년 만의 감소다.

전기전자(IT)·자동차 수출 대기업에 편중된 우리 경제구조를 감안하더라도, 내수 부진은 다른 주요국들보다도 심한 편이다.

작년 3분기 민간소비 증가율(불변가격·전년동기 대비)은 0.2%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6분기 만에 주요 7개국(G7·1.2%)에 추월당했다. OECD 평균(1.5%)에도 미치지 못한 증가세다.

새해 소비 전망도 밝지 않다. 한국은행은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이 1.9%를 예상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2023년(1.9%)과 비슷한 소비가 이어지리라는 것이다.

한은은 "앞으로 민간소비는 양호한 고용 시장과 가계소득 증가에 힘입어 점차 회복되겠지만 고금리 영향 지속 등으로 회복세는 당초 예상보다 더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024년 경제전망을 통해 "민간소비는 고금리 기조로 인한 상품소비 부진이 지속되면서 전년(1.9%)과 유사한 1.8% 증가하는데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연합뉴스



지난달 29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열린 신입행원 연수 수료식에서 고병을 광주은행장과 신입행원들이 기념촬영을 갖고있다. 지난해 11월 입사한 신입행원들은 연수 수료식을 마치고 6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갖는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신입행원 연수 수료식...10명 중 9명 '지역 인재'

35명 직무연수·봉사 활동 등 소화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지난달 29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신입행원 연수 수료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사진>

수료식에는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행장과 박만 노동조합위원장 등 임직원이 참석했다.

지난해 11월 6일부터 8주간 은행업무 습득을 위한 직무연수 및 창구 친절교육, 현장체험 연수, 봉사활동 등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소화한 신입행원들은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연수 프로그램을 수료한 신입행원들은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치며 금융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실무경험을 다져, 오는 7월 임명식을 끝으로 정식

은행원으로 임명받게 된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광주은행은 매년 신입행원 채용인원 중 80% 이상 광주·전남지역 출신 인재를 선발함으로써 지역 취업난 해소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올해는 전체의 90%에 달하는 수준인 전체 35명 중 31명을 지역 출신 인재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국세청, 커피트럭과 함께 세정 홍보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은 지난달 29일 세정홍보 활동과 커피차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광주정부지방합동청사 1층 로비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방문 민원인과 청사 입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추진한 우수 성과를 공유하고 연말정산 상담 등 세정홍보와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운영지원과가 준비한 커피트럭은 합동청사 입구 직원과 방문 민원인에게 따뜻한 차를 제공했고, 법인세과는 '연말정산 상담창구'를 개설해 연말정산 책자와 리플릿 등 도움 자료를 배부하고 민원 상담을 실시했다.

또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한 고향사랑 기부제도도 홍보해 지자체 기부사업 활성화에도 힘을 보탰다.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올 한해 업무에 매진해 성과를 거둔 직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난달 29일 광주지방국세청이 마련한 세정홍보 및 커피차 나눔 행사가 열렸다. 양동구(가운데) 광주지방국세청장 등 합동청사 직원들이 커피차에서 만든 차를 받아 이동하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 제공>

"소상공인 1인당 20만원 전기료 감면"

최상목 장관 "비은행권 차주엔 일정폭 이자감면"

올해 1분기 중으로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명에 대해 1인당 20만원 전기요금 감면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대 걷고 싶은 거리'를 찾아 상인

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올해 정부 예산에 2520억원이 반영됐다. 최 부총리는 은행권이 소상공인에게 이자환급 지원 등을 실시한 점을 언급하면서 정부도 3000억원의 재정을 동원해 비은행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차주에게 일정 부분 이자 감면을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소상공인 경영지원 3종 패키지' 시행, 온누리상품권 확대발행, 상품권 사용처 확대 등과 함께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집행률을 높여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최근 경기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나 소상공인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면서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과·배 등 과일 가격 강세 지속

전년대비 최대 34% 오르고 대파도 53.8% '쑥쑥' 농식품부, 미국산 계란 112만개 도입 등 대책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과, 배 등 주요 과일 가격이 앞으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사과와 배 소매가격은 각각 1년 전과 비교해 34.0%, 32.6% 높다.

이는 지난해 기상재해 여파로 사과와 배 생산량이 각각 전년보다 30.3%, 26.8%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사과, 배 가격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설 명절 전까지 계약재배 물량을 공급하고, 가공용으로 활용하던 사과 비정형과와 소형과 출하 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할인 판매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수입 과일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공급을 확대한다. 채소 중에서는 대파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

다.

지난달 29일 기준 대파 소매가격은 1kg에 5235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53.8% 올랐다.

이는 최근 한파, 폭설 등으로 전남 지역에서 출하량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오이, 호박, 풋고추 등도 기상 여건 악화로 생산량이 감소해 가격이 높은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축산물의 경우 공급이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여파로 계란 수급 불안이 생길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농식품부는 서민 생계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올해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동결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매입원가 상승 등에 따라 작년 대비 8% 수준의 인상 요인이 있지만, 생계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가격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금호타이어 신규 CI 공개 "타이어산업 선도"

금호타이어는 1일 미래 비전과 혁신 의지를 담은 새로운 기업 아이덴티티(CI)를 공개했다.

금호타이어는 기존 CI에서 서체를 굵게 변경해 시인성을 높이고 보다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이미지를 형성화 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규 CI 도입을 통해 향후 모빌리티 트렌드에 맞춰 타이어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게 금호타이어의 얘기다.

새 CI는 공식 홈페이지와 TV광고, SNS, 그룹웨어, 신규 인쇄·판촉 제작물 등에 즉시 적용하며, 순차적으로 간판, 옥외물, 공장 외벽, 연구소 사인리지(디지털 간판) 및 신규 매장 개설 등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정일택 대표이사는 "금호타이어는 퍼포먼스 브랜드 이미지로의 대전환을 위해 새로운 CI를 소개하게 됐다"며 "금호타이어의 의지가 반영된 이번 CI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Your Smart Mobility Partner'로서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도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용의 기운 담은 골드바 광주신세계 3층 '골드듀' 매장 직원이 2024년 갑진년(甲辰年) '푸른 용의 해'를 맞아 용이 새겨진 골드바를 고객에게 선보이고 있다. 골드듀가 선보이는 골드바는 모두 24K 순금 소재로 각각 37.5g, 100g 두 가지다. 골드듀는 매일 2회 오전 11시와 오후 3시에 금 시세를 고지하고, 골드듀와 KGTC의 보증서와 함께 담긴 골드바를 시세에 맞춰 판매한다. <광주신세계 제공>